**샘솟는 교회**

2018 03 06

**평신도 후기**

이전에 있었던 성경 읽기들은 챕터별로 남, 여 두분의 낭독으로 그냥 일반 책을 읽는 느낌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참석했던 분들이 때로는 듣다가 졸음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았었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성경읽기는 말씀 속의 인물들이 활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입체감으로, 장면마다 눈으로 보는듯 그리고 듣는 자신도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넘쳐 흥미 진진한 성경읽기였다. 물론 성경속에있는 인물들의 역할을 맡았던 분들의 대사처리가 때로는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약간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일단 성경을 지루함 없이 들으며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무척 고무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집중하지 못할때면 나 스스로가 성령충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되어 하나님께 죄송한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번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는 그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드라마 바이블" 읽기는 성경통독에  도전하는 분들이나  믿지않는 분들에게 조차 성경을 재미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툴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런 좋은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임한나 사모

**목회자 후기**

덕분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함께 새벽 기도 시간에 읽어 나갔더니 여러가지 우익한 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점은:
1. 함께 듣고 읽어 나감으로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달랐습니다.
2. 생동감 읽는 리딩 덕에 지루하지 않게 일을 수가 있었습니다.
3. 목사로서 늘 새벽기도 설교 준비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나 자신 역시 말씀 속으로 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4. 성경 일기를 마친 후  간단한 교제의 시간에 쬡게나마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간에 일방적으로 목사의 설교만 듣고 기도하던 것보다는 좋았던것 같았습니다.
5. 이번에는 복음서로 마치고 계속 창세기 부터 일년 일독을 목표로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
1. 새벽기도 시간이라 일고 기도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한것 같았습니다.
2. 개인적 받은 은혜 나눔의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바물 목사